

연중 제27주일

기도서 P. 452 C해

제1독서(하 바 1, 2-3, 2, 2-4)

제2독서(디모후 1, 6-8, 13-14)

복 음(루 까 17. 5-10)

숲 정 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제5차 순교자 현양대회 강론 □

신앙의 현실화와 생활화로 신앙부흥하자!

김 재 덕 주 교

□ 순교자 현양대회의 의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로마 6장 4, 8절)

오늘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조상 순교복자들을 기리며 현양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① 이 땅에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진리와 신앙을 증거한 순교복자들의 용덕과 그들이 쌓아올린 공적을 기리면서, ② 그들에게 이러한 용기와 승리를 주신 하느님께 무한한 찬미와 감사를 드려야 하며, ③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섯번째 맞는 순교자 현양대회의 의미입니다.

□ 빛나는 한국 순교사(殉敎史)

1784년, 우리 조상들의 손에 의해 하느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이래, 근 100여년간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성직자와 신자들이 복음을 수호하고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13세의 소년으로부터 79세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오직 진리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치신 우리 선조들의 굳센 신앙과 사랑과 용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값진 신앙의 유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지방은 실로 남방(南方)교회의 요람지요, 한국의 성지(聖地)중의 성지라고 가히 일컬어질만큼 훌륭한 역사(순교사)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1791년 신헤(辛亥)박해로 윤지충과 권상열 등이 남문밖(지금의 전동성당)에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이 땅에 피를 흘려 순교했습니다. 1801년 신유(辛酉)박해에서는 유향점 일가가 남문밖, 감옥, 혹은 이 숲정이 등지에서 순교하였고, 특히 부부 동정 유요한과 이누갈다가 숲정에서 장렬하게 순교하였습니다. 1839년 기해(己亥)박해 때는 신부 영입을 위해 5~6차례나 북경을 왕래한 신대보(베드로) 외 많은 분이 이곳 숲정에서 순교했습니다. 1866년 병인(丙寅)박해에서는 전주 여러 곳에서 순교했고, 그중 숲정에서 순교한 일곱분 모두가 1968년 10월 6일 시복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외에도 여산·고산·진산(忠南 금산군)·김제 등지에서 그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분들이 피를 이 지방에 뿌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순교성지에서 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순교의 피로 적신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순교자들의 선혈이 흐르고 있는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손임에 틀림없습

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후손이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일찌기 세례자 요한은 바리사이와 사람들과 사두가이와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족속들아! 락처울 정벌을 피하라고 누가 당신들에게 일러주었습니까? 당신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이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마시오.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다.”(마태오 3장 7~9절) 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들의 반성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손임을 자랑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을 본받고 그대로 생활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손으로서 그분들이 지니신 신앙과 정신을 얼마나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4년후(1984년)에 우리는 이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지 2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구적으로는 7년후인 1987년에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러가지 행사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행사 자체보다는 그 행사의 바탕을 이루는 정신적 요소가 더욱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기본정신은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던 순교복자들의 고귀한 정신과 신앙을 되찾고, 그들의 굳건한 신앙을 (2면에 계속)

숲 정 이 산 채



(1면에서 계속)

우리 안에 새롭게 현실화(現實化)하고 생활화(生活化)하느니”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상을 감안하고, 우리 교회의 실정을 생각할 때, 순교자들의 정신을 되새겨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비교적 윤택하고 안락한 생활을 이룩하게된 인간사회는, 지나치게 물질과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조화있는 윤리와 도덕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음으로써, 윤리적인 요구와 정의의 요구와 심지어는 사랑의 요구조차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이나 쾌락,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오늘의 사회풍조가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렵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멀어지거나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 하여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창설된지 200여년이 다 되었지만, 신자수가 겨우 100만여명에 불과하니 이는 총인구의 3%에도 못미치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의 신자수 역시 6만여명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냉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갖는 순교자 현상대회는 실로 우리에게 깊은 뜻을 깨우쳐 준다 하겠읍니다.

□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순교자들의 굳건한 신앙을 되새겨야 하겠읍니다. 다시 말해서,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부흥을 기필코 이룩해야만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신앙의 현실화를 이룩해야 하겠고, 둘째는 신앙의 생활화를 기필코 달성해야만 하겠읍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화를 이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현실화란, 우리의 신앙을 바람불고 물결치는대로 그저 시세 변천에 따라서 적절히 꾸러나가는 식의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인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체제는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체제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듯이, 인간이, 만일 그것도 신앙을 가진 인간이 시세 추세에 따라서 신앙의 질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벌써 참신앙의 소유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확고 부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현실화는 「신앙의 사회화(社會化) 혹은 보편화(普遍化)」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오늘 우리의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극히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양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구원, 자기 혼자만의 고행에서의 열심한 기도생활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대한 누룩과 빛의 역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복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마음 안에 깊이 숨겨두어야 할 보물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이며 사랑이기에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야 하며, 밖으로 팽창해 나가야 하고, 사회속에 널리 확산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은 만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들의 신앙이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의 누룩과 빛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선열들이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였다면, 숨어서 고행에서도 안전하게 신앙을 보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사회화를 위해, 즉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면서 이 땅에 진리를 공공연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언자적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부흥을 위해 신앙의 생활화를 기필코 달성해야만 하겠읍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생활 자체입니다. 신앙은 가식이 아니라 진실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어떤 외적인 방편이 아니라 내적인 회개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 1독서(마카베오 후서 6장)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에 타협하지 않고, 비록 왕의 명령이지만 목숨과 바깥, 나쁜 표양을 남기지 않은 율법학자 엘르아잘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아무리 어려운 입장에 놓이더라도, 결코 양심을 거스려서까지 불의와 타협하거나 권력이 아부하는 등 신앙을 위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결코 어떤 외적인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가령, 요즈음 사회에는 소위 정화의 바람이 요란하게 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 그것도 사람들과의 마음에서 의(義) 아닌 가식과 원한을 심는 방법에 의해서, 예컨대 고발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어제 라디오를 들으니, 정화의 일환책으로 그동안 학교에 설치했던 신고함과 고발함을 철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며, 당초부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참된 개심(改心)이 없이 진정한 정화는 이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먼저 올바른 생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즈음 “국가가 있고 국민도 있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흔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가령 독재의 나라에서라면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일지 모르나. 그러나 적어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라면, 국민이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또 그렇게 형성된 나라가 아니고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국가(國民國家)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라면 제각기 마음을 달리하는, 심하면 내심으로 불만과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일망정 참된 의미의 국민국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국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갈과 모래를 아무리 많이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실재 그렇게 쌓아 올릴 수도 없지만, 시멘트와 철재같은 접착제를 쓰지 않고는 결코 훌륭한 건물이 이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억지로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마음으로부터 순응(順應)과 사랑과 협조심이 없는 곳이라면 종화로운 단체는 이룩될 수 없는 법입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은땀에는 휘장을 걸치고, 허수아비처럼 주먹을 휘두르며 고향을 질러 외치는 쫓기의 군중이, 만일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강제동원에 의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위장된 쫓기대회이며, 성공은 커녕 오히려 내심으로 반심(反心)과 불신만을 더욱 조장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위장된 행위를 지혜롭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의(義)를 위하여 용감히 목숨을 바쳐 진리를 사회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3면에서 계속)

저희에게 믿음을!

정 승 현 신부

오늘은 열 세번째 맞이하는 군인주일입니다. 군인주일은 물론 군인들에게 신앙을 전 하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것 도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들을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 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 음이라도 있다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 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이란 하나의 전능한 힘, 불가능한 것 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A. Nolan,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 분도출판사, pp. 55-64 참조). 믿음의 위대한 힘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 17, 10; 마르 9, 23; 11, 22-23 등).

예수께서는 믿음으로써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야 어쩔 수 없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희망이 어디 있느냐?’ ‘태양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 다.’ ‘현실을 받아 들여라.’—이런 숙명론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 하늘 새 땅’을 바 라보며 전진하도록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믿 음만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실효를 낼 수 있게 하리라고 생각하 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에게도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을 지키는 그들, 매일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에 임하면서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 낯설고 물설은 곳에서 근무하는 그들에 게 근본적인 희망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깝게는 평화통일 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이 전쟁을 극복하고 구원(久 遠)의 하느님 나라를 향해 행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믿음을 탄생시켜야 하겠 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 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부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2년에서 계속> 이러한 순교자적인 정신 소유자만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민족 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순교정신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이 순교자의 후손임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의 기념도 무의미할 것이고, 우리 교 구 설절 50주년 기념행사도 형식에 그치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순교 자 헌양대회를 맞이하여 순교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우리는 먼저 생활화합니다. 그리 고 용감한 순교자들의 후손으로서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추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 히 보존하고 새롭게 하며, 이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주도록 우리 모두 다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셉이 (374) 김병오

지금은 출도라고 더럽지도 않아 좋습니다



뭘가양등에는 못대치나 불금도 15% 올려준다니 좋습니다



새헌법으로 개정되니 좋습니다



내년에는 세금을 더 내게되어 좋습니다



(축) 결 환

1랑-1박 광 수(요셉)
신부-전 미 자(해레나)
일시: 10월 9일 오후 2시
장소: 둔물동 성당에서
주례: 안 북 진 신부

사무장 채용

자 격: 고졸 이상

연 락: 서학동천주교회
전화 ☎ 2276

□ 타을, 보자기, 축석 인쇄
※ 교우여러분들의 협조바랍니다

송월타을

(남문영업부)
전주시 전동 3가 9
(전북은행 남부지점)
전화 ☎ 2849 • ☎ 5612
업 판 설(베드로)

10월 1일 전주 토용 개점

토용(土龍)은 약이 아니라 교영 양 식품입니다.

그 복용자들로부터 그 효과가 신 비의 영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래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께 알리고 권하고자 전주에도 분점 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관 성 베네딕도 수도원 최로렌조 수사님께서 개발하여 연 구실험한 결과입니다.

적응증: 모든 간질환. 부인병. 저 혈압. 폐결핵. 원기쇠약. 각종 난치병

전주 성모병원 3층(322호)
전화 ☎ 2301 오예환(바오로)

제2차 마인드 콘트를 강좌 안내

일 시: 80. 10. 6 <월>부터

오전반: 10시

오후반: 6시 30분

장 소: 이리 적십자 애환관
(역전) 전화 ☎3126

강 사: 김중배(말시아노)
수석강사 직강

무료 공개 강의: 10. 6~7
(2일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대학생 화요미사...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덕진 가톨릭 회관에서
 2. 전국 올드레아...10월 9일 오전 9시, 대전 충무 체육관에서
 3. 제 2 지구 학생 연합미사...12일 오후 3시, 월명동성당에서
 4. 제 2 지구 올드레아 회의...5일 오후 2시, 문물동성당에서
 5. 제 2 지구 교리교사 1일피정...10월 9일(목), 화산 나바위 성당에서 주제-문제 행동아와 교리교사
 6. 교도소 수인 신자들을 위해 공동체 성가집 기증...팔마천주교회(10권) 익명신자(10권) 감사합니다
- 문학각좌 안내...10월 18일(토)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에서
강사-이근배 시인, 제목-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군인성당 건립을 위한 성금(정승현 신부)...정읍 이복례(2만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희
보좌 신부 박기성
사도 회장 김병규

1. 프란치스코 3회 : 오후 2시, 강당
 2. 사도회 월례회 : 9일 오후 8시
 3. J.O.C 정기총회 : 5일 공식미사 후, 회합실
 4. 어머니 성가대 월례회 : 9일 오전 10시 30분
 5. 성심부녀회 월례회 : 10일 오전 10시 30분
 6. 인성회 월례회 : 10월 6일 오후 7시 30분
 7. 청년성가대 월례회 : 5일 저녁미사 후 강당
 8. 병자방문 : 7일(화) 오전 10시부터
 9. 우리아 피정 : 10월 13일~15일 "광주 명상의 집"
※ 13일 12시까지 중앙성당으로 집합하세요
 10. 특별강연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 저녁미사 후
10월 8일-가난한 자들의 권리
15일-가난한 자들의 권리
22일-양심을 일깨우는 자들-예언자
29일-가난한 자들의 기쁨
- 지난주 봉헌금 : 257,721원

(노충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준민
사도 회장 박준민

1. 사도회·애령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상임위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2. 성서 강의 : 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수녀님들을 위한 성서 특강-매주(월) 오후 2시~4시까지
 3. 전교의 달 :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모든 신자는 전교회를 남부합니다 (일반회비 년 500원, 특별회비 년 2,000원)
 4.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세미나를 받으신 분은 모두 참석합니다
 5. 금주의 성경읽기 : 주약의 이사야서 전체
- 지난주 봉헌금 : 110,49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성오
보좌 신부 조상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미사시간 변경 : 평일-오전 6시, 주일학교-일요일 오후 3시, 2시-교리, 중·고등학교-토요일 오후 4시(10월 1일부터)
 2. 감사합니다 : 애령회 회사-반석회(5만원) 제대조-장테레사씨
 3. 10월은 매피 성월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국가를 위해 묵주 기도를...
 4. 10월 5일은 군인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병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5. 본당 추계 대청소 : 비·결레·호미 지참하세요 (11월)
 6. 축! 결혼 : 10월 12일 오전 11시 신랑-박중수, 신부-최영애
- 지난주 봉헌금 : 59,135원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봉헌금 미수 없도록 완납바랍니다
3. 보좌신부님 영명축일에 많은 기도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4. 신용조합에 아직도 가입 않은 교우들의 가입을 바랍니다

5. 미사시간 변경 : 저녁미사-7시 30분 아침미사-6시
 6. 예비자 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8시)
- 지난주 봉헌금 : 134,38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영수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5일)
2. 본당내 Pr임원 모임 : 8일(수) 저녁 8시
3. 올드레아 모임 : 7일(화) 저녁미사 후
4. 성심부녀회 : 10일(금) 오후 2시, 사제관에서
5. 반장님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대학생들 모임(안셀모회) : 다음주일(12일) 오후 3시
7. 어머니 미사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8.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김낙균 ② 강남준, 신자들의 기도-한형수

(숲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10월 5일은 군인주일입니다. 국군장병들을 위하여 특별헌금을 모금하오니 협조바랍니다
 3.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전교회에 가입합니다 년회비-일반 500원, 어린이-200원, 특별-2,000원 이상
 4. 청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매주 화요일 미사 후로
 5. 중·고학생들은 토요일 학생미사에 나오고, 주일미사는 나오지 마세요
 6. 신축기금 내주신 분 : 스태 사장 장남수(10만원), 정은주 어린이(2,870원), 전동-김봉조·안득수(각5만원), 황현도(10만원), 조순봉(1만원), 이리 주현동-이점례(5천원), 이장례(1만원)
- 지난주 봉헌금 : 50,30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홍

1. 사도회 : 공식미사 후 임원, 신심단체장, 각 동반장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2. 유아세례 : 9시미사 후
3. 클라라 형제회 : 오후 1시 30분
4. 오늘은 군인주일 : 특별헌금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5.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 묵주의 기도 많이 바칩시다
6. 미남원 교우들을 남부합니다
7. 다음주 전례담당(10월 12일)
아침미사 : 사회-이신홍, 독서-① 김대원 ② 박중수
공식미사 : 사회-이준영, 독서-① 김병오 ② 박순기
저녁미사 : 사회-김운주, 독서-① 김동수 ② 임순란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부녀회 9월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우리아 회합 : 다음주
 4. 수녀원 신축을 위해 신입금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신입자-이동주(10만원), 이안나(10만원), 최 선(2만원)
- 지난주 봉헌금 : 27,000원